

조선 백성 밥그릇이 일본 국보가 된 사연



김희순의 호남의 명산

고흥 운암산(484m)

우리나라 전 국토가 유린당했던 임진왜란 때,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고흥 운암산(雲巖山·484m)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가 있던 곳으로, 왜군에게 주요한 표적이 되었다. 임진왜란 발발 배경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제 교역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등장한 ‘은(銀)’으로 인한, 대륙세력 명나라와 해양세력 일본의 치열한 견제와 충돌이다. 그 전쟁의 이면엔 도자기가 있고, 분청사기의 주산지였던 고흥 운암산은 그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했다.

16세기 대항해시대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은광을 발견했고, 대량의 은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시기 중국 명나라의 도자기와 비단은 유럽에서 최고의 인기 품목이었다. 은을 기축통화로 쓰는 명나라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은’의 블랙홀이었다.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은 오랫동안 명나라를 중주국으로 하는 조공·책봉 관계였으며, 명나라의 독점 무역 체제가 이어졌다. 이런 견고한 구도가 균열되기 시작한 것은 1526년 일본 시네마현에서 ‘이와미 은광’이 개발되면서부터다. 이후 일본은 단숨에 연 20만kg의 은을 채굴하며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다.

임진왜란과 은·도자기가 얽힌 역사 현장

일본은 은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최신 무기인 조총과 화약을 사들임과 동시에 강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다. 100년 넘는 전국시대 내전을 거치며 단련된 군사적 에너지와 급등한 경제력, 히데요시의 야심이 더해져, 중국과 인도 대륙으로 진출을 모색했다. 조선 선조 24년(1591)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나라를 치러하니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한다. 조선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듬해 4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한

거친 암릉 8600만 년 겹겹이 쌓여 형성된 ‘바위 전시장’ 황금빛 물든 해장만 풍경·바다에 잠긴 팔영산 감상도

수준의 다인(茶人)이었다.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센 리큐(千利休)를 스승으로 모시며, 일본 다도 문화를 정립하고 다도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는 데는 일본의 다도 문화와 궤를 같이한다. 일본에는 12세기 말 송나라에서 차(茶) 문화가 처음 전래됐다. 초창기에는 중국이나 고려에서 수입한 찻그릇과 다기를 사용하다가 점차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워졌다. 이에 반발해서 센 리큐가 다도에서 와비(侘·わび) 사비(寂·さび) 정신을 추구한다. “정적이며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것, 오래된 것이 새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며 일본식 다도를 안착시킨다. 그러한 시대 흐름과 대중적 욕구에 따라 일본의 상인들은 조선의 분청사기에 주목하며 조선 도공에게 분청사기 막사발을 주문 제작한다.

조선에서 막사발은 막사기로 불리던 생활 그릇인데 일반 백성들이 밥그릇, 국그릇, 막걸리 사발 따위로 사용했다. 기존의 도자기가 완벽한 균형미를 추구했다면 막사발은 비대칭적이며 살이 두껍고 투

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흐얀 황토로 빚어낸 소박한 그릇이지만 일본 다도에서 추구하는 와비 정신에 딱 들어맞으며 최고의 명물로 대접받았다.

일본 교토 다이도쿠치(大徳寺)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26호 ‘이도다완’은 조선에서 건너간 막사발이다. 조선의 막사발을 일본에서는 “작은 성(城) 하나와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귀하게 취급했다. 오죽하면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공 후 내린 첫 칙령이 “조선의 도공을 잡아오라”는 것이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로 넘어가는 200여 년간 유행했으며 세종과 세조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임진왜란 때 많은 도공들이 왜군에 잡혀가면서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히데요시가 눈독들인 분청사기의 메카

운암산 서쪽에 위치한 운대리 일대는 청자 가마터 5개소와 분청사기 가마터 25개소가 밀집분포하고 있어서 고려와 조선시대 자기의 변천사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적지다. 특히 국내 최고의



죽순 바위

‘담병 분청사기’ 생산지였다. 유약을 탄 물에 그릇의 굽다리(밑부분)를 잡고 거꾸로 담병 담갔다가 구워낸 분청사기라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광주 충효동, 공주 학봉리, 고창지역에서도 생산되었지만, 고흥 운암산 운대리에서 황금기를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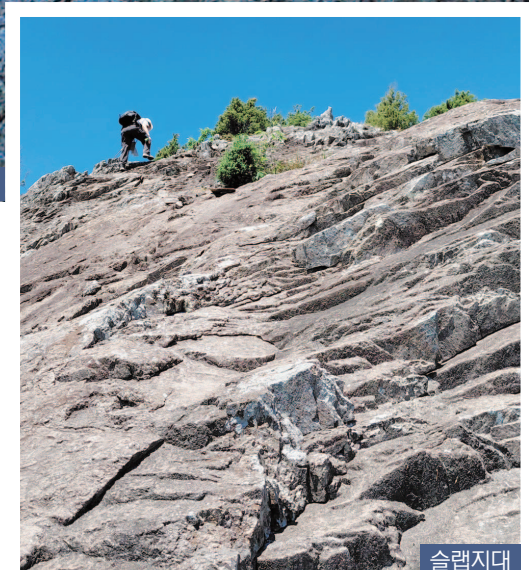
운암산은 물이 좋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 물, 불 3요소가 잘 배합돼야 한다. 운암산 서쪽, 고려시대 창건된 수도암(修道庵)을 방문하면 주자가 방문객에게 제일 먼저 건네는 인사가 약속한 사발이다. 남쪽 절터에 영천이라는 샘이 남아 있다. 예로부터 피부병에 좋다고 영험한 물로 대접받는 명수(名水)다.

운암산은 바위 명소가 많다. 약 8600만 년 전 격렬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형성된 화산암(응회암)으로, 이때 분출된 화산재가 수천만 년 동안 겹겹이 쌓여 펄스루 같은 층리와 구름장처럼 쪼개지는 독특한 바위, 슬랩지대가 생겨났다. 코바위, 죽순바위, 벼락바위, 병풍바위, 너럭바위 등이 있다. 코바위 아래 경사면은 최근 SNS에서 소문난 사진명소다. 황금빛으로 물든 해장만의 너른 풍경과 바다에 잠긴 팔영산의 전경을 볼 수 있다.

들머리는 박지성 공설운동장이다. 수도암에서 오르는 길이 있지만, 동산동 경로당에서 출발해서 원점회귀 하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주요 지점마다 이정표가 잘 설치돼 있고 등산로 관리도 양호하다. 정상엔 잡목에 의해 시야가 막혀 있지만, 등산로 전체적으로는 웅장한 팔영산과 마복산, 거금도 적대봉을 비롯해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을 두루 조망하면서 산행이 가능하다. 특별히 위험 구간은 없지만 코바위에서 안부까지 내려가는 급경사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암 입구에는 ‘운암산(雲巖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도상에 표기하는 지명과 사찰에서 부르는 지명이 다른 이유는 조선시대 송유역불정책과 일제강점기에 행정 편의를 위해 한자표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괴리다. 지역이나 불교계에서는 오랫동안 불려온 지명을 그대로 유지했기에 두 가지 이름이 공존한다.

글·사진= 김희순 산 전문기자



슬랩지대



분청문화박물관

▶산행 길잡이 동산동경로당-농로-독립가옥(등산로 입구)-임릉지대-조망바위-묘석-정상갈림길-정상-정상갈림길-깃대봉-죽순바위-코바위-영천(팔각모정)-독립가옥(추원제)-농로-등산동경로당(8.5km,5시간)
▶볼거리 운암산 서쪽 산줄기 1.5km에 이르는 계곡에는 수도암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화관이 길게 늘어서 있는 문화벨트다. 수도암엔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무루전이 유명하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역사문화실, 분청사기실, 설화문화실 등 상설전시실에 12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2017년에 개관했으며, 입장료는 성인 2000원이다. 가족문화관에서는 고흥 출신 시조 시인이며 선암사 승려였던 조종현 선생과 그의 아들 조정래 작가, 머느리 김초혜 시인의 작품 세계와 각종 유품, 자료를 볼 수 있다.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